

NEIGHBOR

International Art, Design and Style

네 이 버

The New Audi A7



자수 뒤편의 함경아

EDITOR
SEOL MI HYUN

PHOTOGRAPHER
KIM CHUN HO



하나의 자수 회화가 완성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다. 작가가 한 땀 한 땀 손수 정성을 들여 수놓으니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전혀 아니다. 함경아, 그녀의 자수 회화엔 좀 특별한 출생의 비밀이 있다.





컬러풀한 유화인 듯, 사진인
듯, 묘한 인상을 풍기는 함경아
작가의 자수 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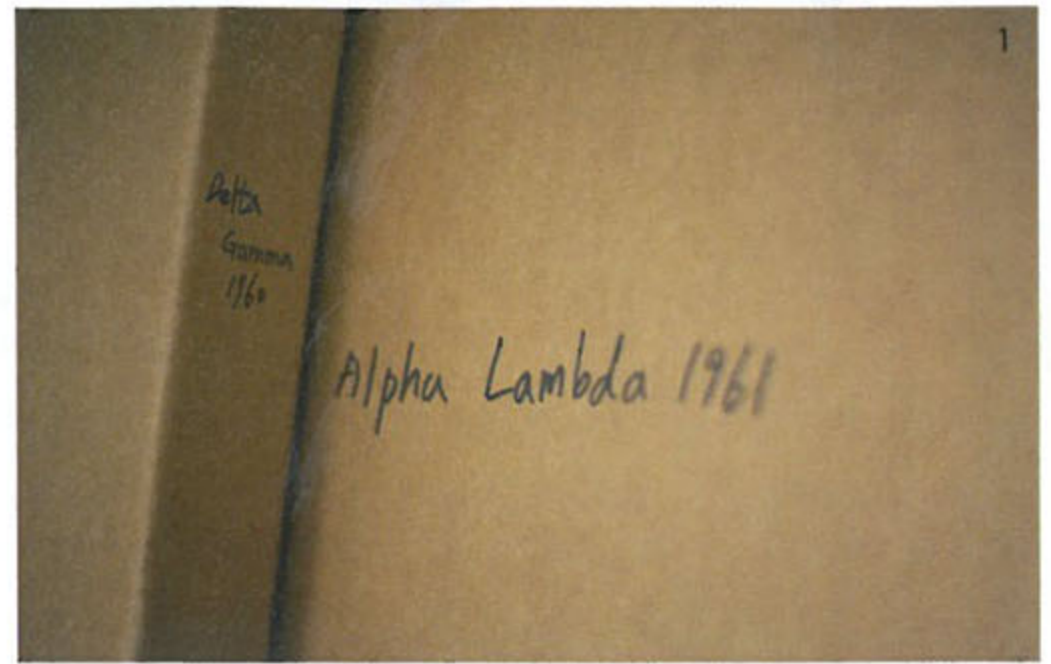
심상치 않은 화려한 컬러다. 사진인가 싶어 다시 한번 쳐다봤지만, 아니다. 자수로 그린 회화다. 물감이 아닌 자수 회화라. 불현듯 수틀에 곱디고운 색실로 수놓던 우리 어머니들의 옛 모습이 떠올랐다. 잠시 회상에 젖을 틈도 없이 그녀는 보기 좋게 뒤통수를 친다. "자수 회화는 디지털 작업으로 형태를 만든 뒤 중간책을 통해 그 사람들에게 보내집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란 북한의 자수 노동자들이다. 단순히 작가의 공들인 회화 정도로 여겼던 생각은 '북한' '중간책'이라는 낯선 단어들과 함께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만다. 전시 제목부터 〈Phantom Footsteps〉, '환영의 발자국'이지 않나. '자수 회화'로 알려진 아티스트 함경아. 그녀의 개인전이 6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열린다.

"어느 날 집에 우연히 날아 들어온 '빠라'를 보게 됐어요. 빠라는 체제의 프로파간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데, 그걸 본 뒤 '나도 빠라를 보내야겠다!' 싶었죠." 2년 만에 열리는 이번 개인전은 2008년부터 시작된 자수 회화의 연장선이다. 그 어떤 경계도 사라진 디지털 세상에서 홀로 통제된 정보와 체제 속에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 "그쪽에 말을 걸고,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발상은 그렇다손 치자. 대체 어떤 방식으로 빠라를 보낼 것인가. 답은 '자수'였다. "북한은 자수라는 매체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실제로 국가 원수가 방문하면 자수를 선물할 정도로 장려되는 매체이기도 하고요." 방법은 이렇다. 디지털 작업으로 완성된 이미지를 중국과 북한을 오갈 수 있는 중간책에게 전달하고, 다시 그들이 북한의 자수 노동자(자수 장인)에게 작업을 전달하는 식이다.

"해골, 주얼리, 보석 이미지, 디저트 등과 같은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이미지는 검열에 걸려요. 추상적인 이미지 역시 그쪽 체제에서는 반역이래요. 그러니 노동자 입장에서 제 작업은 굉장히 낯선, 시각적 경험일 거예요." 작가는 그들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미지를 추상화시킨다. 이미지뿐 아니라 노래 가사, 특정 글귀를 보내기도 한다. '어쩌면 그대와의 만남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랐는지도 모르죠' '방가방가'. "이런 신조어는 당연히 밑에 설명을 써서 보냈죠.(웃음) 노래 가사는 우리의 서브컬처가 은근히 숨어 있고, '방가방가'와 같은 신조어 역시 자수 놓는 장인의 입에서 다른 이의 입으로 은연중에 퍼져 나갈 수 있는 서브컬처인 것이죠." 그렇다고 거창한 메시지를 보내는 건 아니다. 때론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기도 한다. '당신도 외롭습니까?' 물론 그들의 답변은 기대할 수 없다. 다만, 그들 나름대로 자신의 글에 담긴 의미를 해석했을 거라고 그녀는 믿는다. 설령 검열에 문제가 생겨 작품이 되돌아오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므로 결코 헛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의도치 않은 회신이 올지라도

"이번 작업은 작품을 받는 데 1년 6~7개월이 걸렸어요. 산에서 메아리를 칠 때, '야호' 하면 바로 오는데 제 경우엔 '야호'를 1년 후에 듣는 셈이에요. 그걸 듣기 위해선 견결한 인내심이 필요했죠." 작품이 무사히 그녀의 손에 돌아오기까지 불안과의 싸움이 시작된다.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이 기다림은 스트레스로 다가올 뿐. 오랜 기다림 끝에 작품이 돌아온들 모든 작업이 흡족한 건 아니다. "제 생각과 다르게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떤 것은 색의 콘트라스트가 너무 심했어요. 아마 열악한 조도에서 작업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것은 황당해서 웃기기도 하고, 화가 날 때도 있죠." 자수 장인의 실력이 모두 훌륭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알다시피 그녀가 자수 장인을 선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디자인할 땐 컬러를 세련



1 비밀스러운 그녀의 작업 단서들이 작업실 곳곳에 자리한다. 2 그녀만의 빠라를 보낸 후, 1년 이상의 기다림 끝에 돌아온 자수 회화가 6월 대중에게 공개된다. 3 작업실에서 전시 대기 중인 자수 회화. 자수 회화의 앞면은 말할 것도 없이 뒷면조차 정교함이 묻어난다.

되게 했는데, 막상 돌아오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실의 퀄리티가 좋지 않아서 그렇다기에 실을 구해주기도 했는데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컬러에 대한 미감 역시 판이했다. 노랑, 빨강은 좋아하지만 파스텔 톤엔 반응이 썩 좋지 않았다. 어떤 장인에 맡기느냐에 따라 퀄리티는 물론 느낌도 다른 자수 작업이 나온다. 하물며 같은 검정을 요청해도 장인마다 쓰는 색이 달랐다. 소위 말해 복불복인 것이다. "그렇다 보니 같은 작품이 하나도 없어요.(웃음) 모든 게 유니크한 피스들이죠." 사실 그녀의 자수 회화는 세련된 컬러 조합과는 거리가 있다. 그 대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 땀 한 땀 수실로 써내려갔을 그 시간의 기록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돌아올 때도 별의별 과정을 거쳐 제 손에 도착하죠. 기차 타고 뭐 타고, 그렇다 보니 어떨 땐 담배 냄새도 배어 있고." 돌아온 자수 작품의 천에서 냄새가 난다는 걸 처음엔 그녀도 몰랐다. 그 사실을 알려준 건 바로 그녀의 고양이. "천에서 냄새를 맡는 고양이를 보며 사람의 감각과 과연 다르구나 싶었죠. 우리의 감각으로는 추적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 고양이의 뛰어난 감각으로 추적 가능했던 거죠." 실제로 냄새를 맡아보니 고약한 냄새가 났다(물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자수가 놓이는 당시의 상황도 물론이지만 냄새 밴 채 돌아온 그 수많은 시간의 기록, 과정이 하나의 작품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이 때문에 그녀의 작품 캡션엔 1800시간, 2사람, 1600시간 4사람 등 시간에 관한 기록이 함께 적혀 있다. 작가에겐 이 시간이 곧 재료인 것이다. "결국 관객은 화려하게 단장한 자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담긴 그들의 흔적을 보는 것이죠." 화려한 자수 뒤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시간의 기록. 그리하여 함경아의 자수 회화는 아름답고 정교한 수실의 향연이 아닌 한 땀 한 땀 기록된 시간의 회화다.

"TV를 통해 카드 섹션 장면을 봤어요. 그 내용은 금강산, 주석 얼굴, 권총 이미지였죠. 우연히 카메라가 줌인되는데, 책임자의 지시를 확인하기 위해 카드 섹션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가 열린 들어가는 소년의 얼굴이 보였어요. 한 색깔은 한 소년 이었던 셈이죠." 카드 섹션의 글귀를 완성하는 하나의 픽셀. 그녀의 자수 회화는 이 픽셀이 스티치로 대체된 것이며, 그 뒤에 소년과 같은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다. 이번 전시에 소개될 상들리에 연작을 예로 들어보자. 〈당신이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다섯 개의 도시를 위한 상들리에〉. 분명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름답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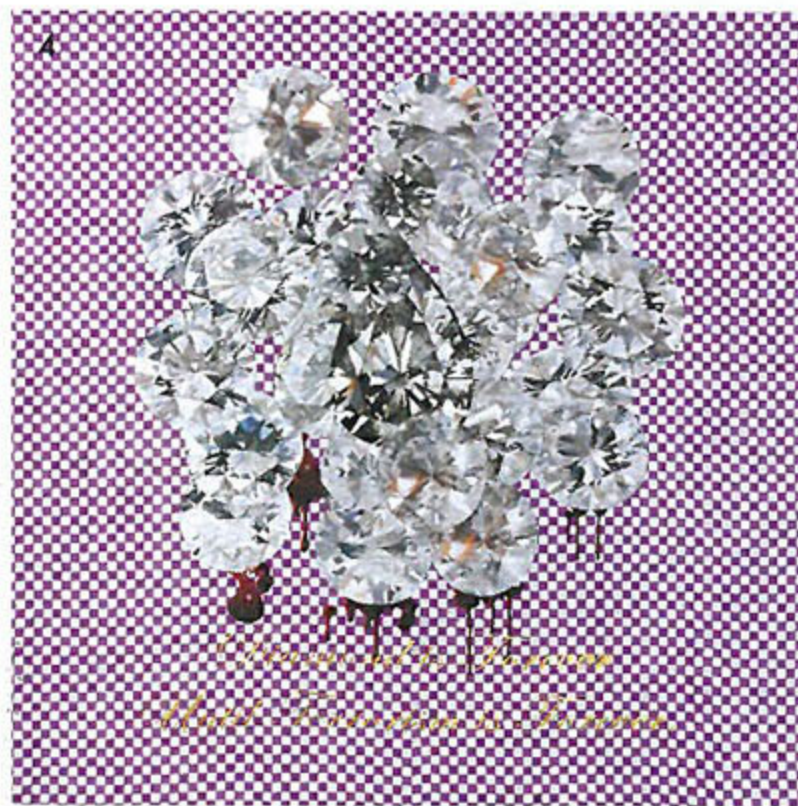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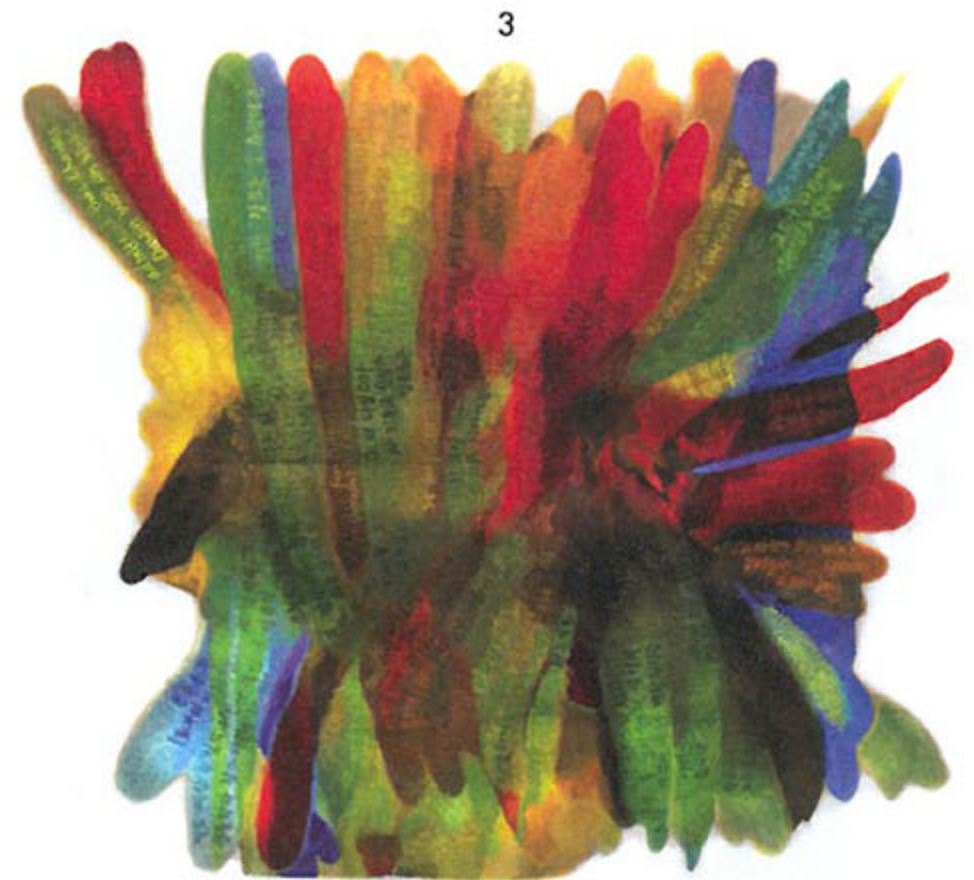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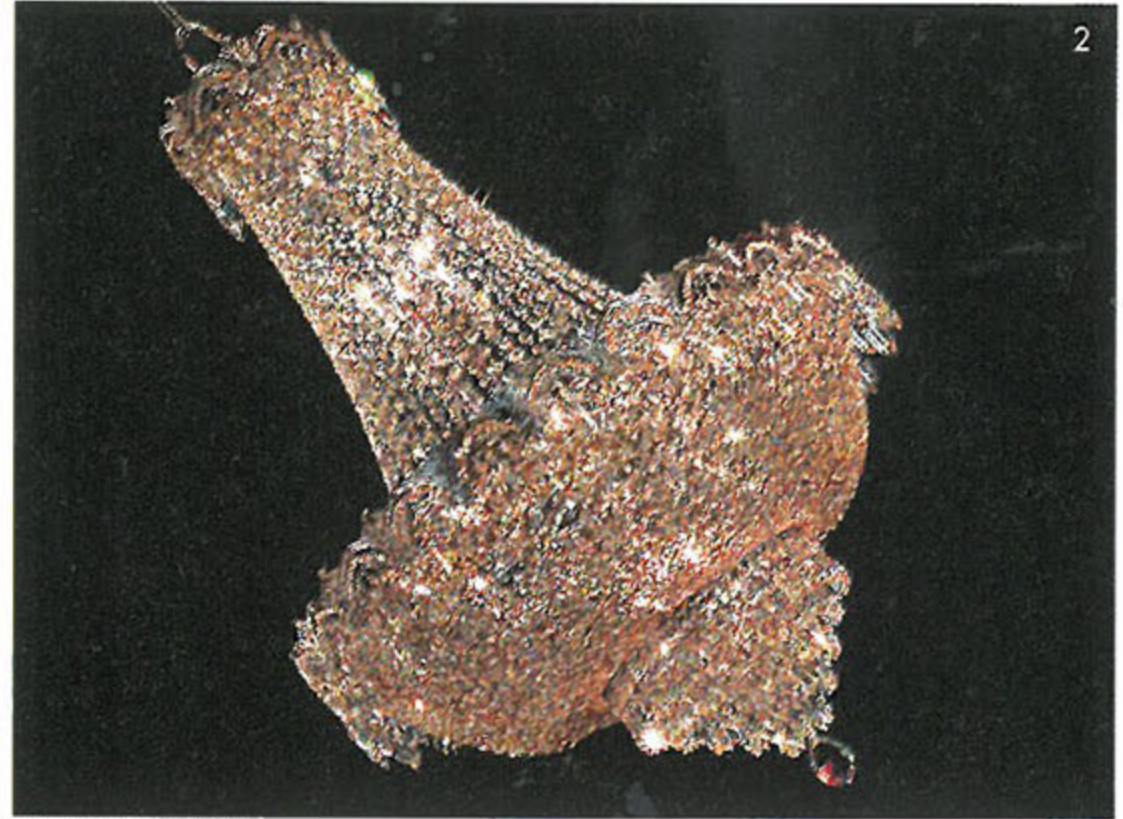
흔들리는 상들리에 앞에 선
함경아. 민감한 정치·사회적
이슈를 자신만의 위장술로
담아내는 그녀의 대담한
소통법은 결코 흔들림이 없었다.



1 Until dawn the chessboard keeps them in its strict confinement with its two colors set at daggers drawn 체스판이 동틀 녘까지 그들을 지체시킨다. 두 색이 증오하는 냉혹한 영역에, 2012-2013, North Korean hand embroidery on silk, 1600hrs/4persons, 188x185cm
2 What you see is the unseen / Chandeliers for Five Cities 04, 2013-2014, North Korean hand embroidery on silk, middle man, anxiety, censorship, wooden frame, 1800hrs/2people, 267x356cm

자수 놓인, 상들리에다. "상들리에는 하나의 커다란 중심적 이미지예요. 어떤 것은 공중에서 흔들리거나 누워 있는 이미지죠. 이것들은 모두 세계사를 장식한 열강들의 사회적 공간에 걸려 있을 법한 이미지입니다." 그녀의 상들리에는 중심에 선 열강들의 화려한 모습 그 자체다. 눈여겨볼 것은 '흔들리고' 있는 상들리에다. 이는 마치 이념이 와해되고 흔들리는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듯하다.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한 상들리에지만, 그 뒤에 숨은 이데올로기, 존재에 관한 메시지인 것이다. "정치, 이데올로기, 검열, 색음, 불법, 불안, 죄, 국가보안법... 이런 것들이 작품에 숨어 있지만, 그걸 넘어 이 모든 것은 '환영'입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자수 안에 내포된 정치, 사회 이슈. 하나 작가는 그것을 드러내는 대신 추상이라는 자신만의 위장술로 속내를 숨긴다. 실제로 작가가 주목한 건 정치·사회적 이슈가 아니다. "그것을 리서치는 하지만 일반화되고, 개인적인 에피소드로 남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 자신의 작품은 정치적 발언이기보다는 그녀의 기억과 감정이 반영된 또 다른 환영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상들리에 작업을 물속에 집어넣는 과정을 비디오로 찍고 싶어요. 마치 데미언 허스트의 포름알데히드 작업처럼 말이죠." 탈북하기 위해 물을 건너듯 이 상들리에 작업을 물속에 집어넣는 퍼포먼스를 하고 싶다는 그녀. 물론 아직까지 수많은 난제가 있고 이뤄질 가능성도 희박하다. "머지않아 차를 바꿔야 하는데 장례를 제대로 치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술 작품처럼 말이죠." 15년을 동고동락한 자신의 차에 장례를 치르는 퍼포먼스를 하고 싶다고, 그녀는 목소리를 한껏 높인다. 하지만 가장 유력한 다음 프로젝트는 아마 그녀의 페인팅 작업이 아닐까 짐작해본다. "저쪽에 팀이 있다고 하지만?(웃음) 너무 길게 가는 작업이다 보니 이제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사실 제 전공도 페인팅이고요." 돌아오는 유학길의 짐이 사기꾼의 농간에 속아 5개월 만에 돌아오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페인팅 작업은 이미 세상에 공개됐을 것이라며 그녀는 웃는다. 커피잔, 접시 등 각지를 여행하며 훔친(?) 물건을 전시장에 보란 듯이 전시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북한에 뼈라를 보내는 대담함. 그녀의 소통법은 분명 여느 작가에 비해 과감하고 독보적이다. 하나 화려한 퍼포먼스에 속아 낚 놓고 있어선 안 된다. 자수라는 아날로그적 매체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의 그림자를 한 땀 한 땀 그려가는 함경아의 자수 회화는 화려함 뒤에 감춰진 '본질'을 찾아가는 가장 먼 시간 여행일 것이므로.



3 Abstract Weave / Morris Louis Untitled A, 2014, North Korean machine embroidery, collected world internet news articles, middle man, anxiety, censorship, tassel, wooden frame, 245(h)x292cm
4 Diamond is forever until terrorism is forever, 2009-2010, North Korean hand embroidery on silk, 1600hrs/4people, 146x146cm,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